

유아교육 선진화의 의미



김관복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장

인간의 지능 저하의 주요 원인은 발달초기 환경의 차이 때문이라고 역설한 미국의 Benjamin S. Bloom은 「인간 특성의 안정과 변화」라는 저서를 통해 0~8세까지는 성인 지능의 80%가 발달되는 지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8세 이후는 겨우 20%의 지능만이 발달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Perry Preschool Project 연구(03)에 따르면 각 생애단계별로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는 다른 생애 단계와 비교할 때 투자 효과가 가장 커서 투자대비 편익 비율이 16.14배에 이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의 EPPE Project(07) 역시 1명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약 £2,500를 지원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의 수입을 약 £17,000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유아교육의 대상 연령을 2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미래사회의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과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부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유아교육 기반을 구축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9년 12월에 5대 정책분야에 25개 핵심과제를 포괄하는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으로 2010년에는 그 실천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그 성과도 하나씩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은 초·중등교육 제도와 연계하되, 유치원의 특성에 맞는 유아교육 제도를 갖추기 위한 시도로, 우리나라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2월 우리부는 고등교육 및 유·초·중등교육 업무를 통폐합 및 조정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 여러 실국에 흩어져 있던 대학관련 업무를 대학지원실로 통합하고, 교육복지국에 있던 유아교육 업무를 학교지원국 신하로 조정하여 유아교육을 학교제도 체제 내에서 점진적으로 정비해 가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는 크게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단적으로 초·중등의 경우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초등학교는 1.3%, 중·고등학교가 29%에 불과한 반면, 유치원은 사립의 비율이 기관수로는 46.3%(10년 전국 8,388개원 중 사립은 3,887개원), 취원 원아수로는 76.5% 수준에 이르며, 주로 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의 숫자가 많으나 대부분이 1~2학급의 소규모 병설 유치원이며, 사립의 경우에도 영세한 유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초·중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이나 원비 책정 등에서 유치원의 자율에 맡겨진 영역이 많고,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과 유아대상 학원 등 다양한 경쟁 상대가 존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유아단계 교육·보육기관의 실태를 보면, 그 경쟁의 모습이 반드시 긍정적이지 만은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시장에서 공급자 간에 경쟁이 있으면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유치원은 원아 확보 경쟁이 심해지면서 과다한 지식교육과 특기교육을 도입하는 등 오히려 원비가 지나치게 오르는 현상도 보입니다. 유치원간 또는 보육시설을 포함한 육아지원기관 간의 경쟁이 학부모의 부담 경감이나 유아교육의 전진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과잉교육, 과다 경쟁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치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여 개개 유치원의 경영을 쇄신함으로써, 원비는 낮추고 교육의 질은 높이며,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아교육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의 비전은 “아이가 행복한 미래형 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진정 즐겁고 행복한 교육기관으로, 아이들이 바르게 배우는 학교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유치원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될 때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학부모들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유아교육의 주체로서 기꺼이 동참함으로써 바람직한 유아교육의 미래상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